시즌4

제1차

| 국어는 이감 |

이감 국어 모의고사

예비평가 지문 분석

이감

[2021학년도 시즌4 제1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

[16~18]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임진록(壬辰錄)」

＊ 수록 지문 평가

이 작품은 임진왜란을 다룬 일종의 역사 소설이지만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 여러 전투에서 패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 것이 현실인데, 이 작품에는 오히려 조선이 일본에 대승을 거두고 왜왕의 항복을 받은 것으로 서술하는 대목이 있다. 이는 물론 현실에서 입은 상처에 대해 허구적 설욕으로 정신적 보상을 얻으려는 시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의해 둘 점은, 이 작품에 참혹한 전쟁을 겪은 당대 민중의 의식과 사대부 계층의 의식이 동시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임진록」에는 수많은 에피소드가 실려 있는데, 각각의 내용을 살필 때에 그것이 어느 계층의 의식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적의 침략에 분노하고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주제 의식은 공통적이지만, 무력하고 무책임했던 지배 계층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나타나는 부분과 그것에 대한 일종의 변명이 시도되는 부분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 수록 지문 분석

 # 토막1 : 덕령은 임진왜란에 참전하기를 바라지만, 모친이 허락하지 않다.

이때 평안도 평강 땅에 김덕령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되,[→ 김덕령의 출생지는 여러 이본에서 평안도 평강, 강원도 이천, 함경도 곡산, 경상도 고령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실존 인물 김덕령의 출생지가 전라남도 광주임을 생각하면,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다. 이름 또한 '김덕령' 외에 김덕양, 김득양, 김득용, 김덕영 등으로 판본마다 달리 적혀 있다. 이는 '김덕령 이야기'가 이 작품의 형성 이전에 이미 인물에 관한 전설로서 널리 구전되어 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연광(年光, 젊은 나이)이 십오 세요, 힘은 능히 천 근을 들고 일 두(斗) 밥을 먹고[→ 대략 500kg 되는 물건을 들 수 있고, 2L짜리 생수통 9개 부피의 밥을 한 번에 먹는다는 말이다. 덕령이 비범한 인물임을 나타내는 서술이겠다.] 둔갑장신(遁甲藏身, 남에게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술법을 써서 몸을 마음대로 감추는 일)은 삼국 적[→ 삼국 시대 때] 제갈량[→ 제갈공명]에 더하다 하되, 시절이 태평하기로 농사를 일삼더니[→ 힘이 장사고 술법까지 뛰어난, 영웅의 자질을 모두 갖춘 인물이 평상시에는 농사를 지으며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거다.] 가운(家運, 집안의 운수)이 불행하여 부친 상사(＝사람이 죽은 사고)를 당하매 애통(＝슬피 울부짖음, 슬프게 한탄함)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뜻밖에 왜적이 조선을 둘러싼단 말을 듣고 모친 앞에 나가 여짜오되,

"소자가 듣사오니 왜적이 가까이 왔다 하오니, 엎드려 빌건대 모친은 허락하옵소서. 부친상복을 벗어 상문[→ 죽은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넋을 이르는 말로, 잡귀가 득실대는 몹시 흉한 방위를 의미한다.]에 사르고 왜적을 쳐 물리치고, 국가의 근심을 덜고, 시절이 태평하오면 소자의 이름이 죽백(竹帛, 역사를 기록한 책)에 올라 부모에 영화를 뵈옵고 복록(＝타고난 복과 벼슬아치의 녹봉이라는 뜻으로,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이르는 말)을 받을 듯하오니, 모친은 허락하옵소서[→ 아직 부친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전쟁에 나가면 부모에게 받은 육신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홀로 되신 어머니를 두고 가야 하니, 아들 된 도리로 이는 당연히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겠다.]."

하되, 모친이 꾸짖어 왈,

"우리 집 사람은 너 하나뿐이라. 선영향화(先塋香花, 조상의 묘에 피우는 향불이라는 뜻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냄을 이르는 말)를 받들 것이어늘,[→ 유교 사회에서 제사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놈아, 우리 집엔 아들이 너 하나뿐이잖아. 너 죽으면 제사는 누가 모시라고?" 이런 어머니의 만류도 이유가 있다.] 어찌 이런 말을 하느뇨? 옛날 명나라 때 호왕이 둔갑(＝술법을 써서 자기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바꿈)을 이루어 소대성을 유인하여 장운동에 불을 질렀으되 소대성을 잡지 못하고 도리어 대성의 칼을 면치 못하여 죽고,[→ 명나라 때를 배경으로 한 소설 「소대성전」에서 호왕은 소대성을 자극하여 장운동으로 따라 들어오게 한 뒤에 큰불을 놓는다. 소대성이 불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나타나 그를 구해 주고, 그 뒤 소대성은 마침내 호왕을 무찌른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김덕령의 모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소설의 내용을 들어 아들을 훈계하는 점은 흥미롭다. 이를 근거로 하여 「임진록」이 「소대성전」의 유행 시기 이후에 창작되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초패왕의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 힘은 산을 뽑을 만큼 세고 기개는 세상을 덮을 만큼 웅대함을 이르는 말)로도 오강(烏江)을 못 건너서 머리를 버혀 유방을 주었으니,[→ 초나라 항우가 한나라 군에 쫓겨 가다 오강에 이르러서 살아남은 소수의 부하들을 배에 태워 오강 건너 고향으로 보낸 뒤에 자결한 일을 말한다.] 너 무슨 재주로 왜적을 물리치리오. 속절없이 전장 백골이 될 것이니, 이런 말 내지 말고 농업이나 힘쓰라[→ 덕령의 모친은, 세상이 다 알 만큼 유명한 두 인물(하나는 소설 속 인물이지만)의 실패 사례를 들어 아들의 참전을 말린다. 자식이 잘못될까 걱정하는 뜻에 한 말이지만, 아들의 재주와 능력을 미처 몰라서 하는 말이기도 하다.]."

하니, 덕령이 모친의 영을 거역할 수 없어 탄식만 하다가,[→ 나라가 큰 위기를 당해도 부모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다는 거다. 우선순위에서 '가문'이 '국가'에 앞서는 상황인 거다. '효'와 '충'이 대립하는 가운데 '효'가 더 중시되고 있는 셈이다.] 도적이 가까이 왔단 말을 듣고 모친 모르게 상복을 벗어 상문에 걸고 집을 나와 순식간에 왜진(＝왜적의 진영)에 들어가더라[→ 나라의 위기를 끝내 모른 척할 수는 없었던 거다.].

[참고] 실존 인물 김덕령은 임진왜란 당시 부친상이 아니라 모친상을 당했다. 형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고경명의 휘하에 들어가 전주로 진격했지만, 형의 당부로 편찮으신 어머니를 모시러 고향으로 되돌아갔다가 모친상을 당하고, 상중에 담양 부사와 장성 현감의 권유로 다시 의병을 일으켜 세력을 크게 떨친다. 이 소설이 김덕령의 실제 상황을 작중에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왜진에 들어간 김덕령은 백지 도술을 써서 왜장 청정[→ 임진왜란의 선봉장이었던 일본 장수 가등청정(가토 기요마사)] 휘하(＝장군의 지휘 아래)의 군사를 무력화시켜 물러나게 한다.

[참고] 소설 속에서 덕령은 청정 앞에서 수만 명 왜병들의 이마에 흰 종이 한 장씩을 붙였다가 순식간에 도로 떼어 버리는 신기한 재주를 선보이는데, 이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왜병들의 목을 한 번에 다 벨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한 거였다. 그런 뒤에 덕령은 청정을 꾸짖으면서, 물러가지 않으면 한칼에 무찌를 것이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청정은 다급하게 물러난다.

 # 토막2 : 덕령, 왜장 청정과 내통했다는 무고를 받고 억울하게 죽다.

어영청(＝조선 후기에 중앙에 설치한 다섯 군영 가운데 왕을 호위하던 군영)에 입번(入番, 관아에 들어가 차례로 당직함)한 김순달이 상께 아뢰되,

"평강 땅의 김덕령이 도술이 천신(＝하늘의 신령) 같으되 안연히(＝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앉아 국사를 돕지 않삽고,[→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도 나라가 위태로운데 태평하게 지냈다고 비난하는 게다.] 청정의 진에 왕래하며 수작(＝서로 말을 주고받음)이 많사와 후환이 될까 하나이다[→ 덕령이 왜장 청정과 친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하게 지내니, 그냥 놔두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다.]."

상이 들으시고 금부도사(= 의금부에 속하여 임금의 특명에 따라 중한 죄인을 신문하던 일을 맡아보던 벼슬)를 명령하여,

"덕령을 잡아 올리라."

하시니, 도사 수명(受命, 명령을 받음)하고 내려가 덕령을 보고 왕명을 전하니, 덕령이 보고 대경(= 크게 놀람)하여 모친께 들어가 그 연유(= 일의 까닭)를 고하니 그 모자지생(母子之生)의 슬픔을 어찌 다 측량하리오. 덕령이 하직하고 나오니 도사 철망(= 철사로 그물처럼 얽어 만든 물건)으로 씌워 갈새, 철원 땅에 이르러 덕령이 도사더러 왈,

"여기 친한 사람이 있으니, 잠깐 놓아주면 가서 보고 감이 어떠하뇨?"

도사 왈,

"공(公, 공적인 일)에 사정(私情, 개인의 사사로운 정)이 없으니, 어찌 잠시인들 놓아 보내리오."

하거늘, 덕령이 꾸짖어 왈,

"아무리 왕명이 지엄(= 매우 엄함)하신들 잠깐 사정이야 없으리오."

하며 몸을 요동(= 흔들어 움직임)하니, 철망이 썩은 새끼줄 떨어지듯 하거늘, 칼을 들고 공중에 솟아 십여 장이나 넘는 나무 끝을 번개같이 다니며 나무를 무수히 작벌(斫伐, 나무를 찍어서 베어 냄)하니,[→ 열 받은 김에, 덕령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다. 이로 보아 그가 금부도사에게 잡혀가는 것은 임금의 명에 순종하기 위함이지, 힘이 없어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도사가 아무 말도 못 하고 구경만 할 뿐일러라.

문득 공중으로서 한 사람이 날아와 덕령의 손을 잡고 왈,

"내 아니 그렇다더냐?[→ 자신이 덕령에게 일어날 일을 짐작하고 이미 경고했음을 상기시키는 말이다.] 환을 당하였으니, 바삐 가 순순히 천명(天命, 하늘의 명령)을 받으라[→ 덕령이 당하게 될 일이 천명에 맞는 것이니,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따르라는 게다.]. 뉘를 원망하며 뉘를 한하리오. 이제 운수불길(= 운수가 좋지 아니함)하여 이런 환을 당하였으니, 나는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아니하리라.[→ 나라를 구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모함을 당해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 덕령의 처지를 보고 세상에 염증을 느낀 게다.] 내 그대를 위하여 입신양명하잤더니[→ 큰 뜻을 함께 품었다는 게다.], 성공치 못하고 그대 비명(= 제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죽음)에 죽게 되니, 내 마음이 슬프도다."

하고 간데없거늘[→ 이 사람이 아마도 덕령이 '친한 사람'이라며 만나려 한 인물인 듯한데, 사실 이 인물은 상당히 뜬금없이 등장할 뿐 아니라 실체도 분명하지 않다. 뒷일을 경고하거나 함께 큰 뜻을 펼치려 계획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 앞선 맥락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앞에 덕령과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무슨 계획을 도모하거나 하는 장면이 작품 속에 나오지 않는다.], 덕령이 도로 철망을 쓰고 전하께 뵈오매, 상이 가라사대,

"대환(大患, 큰 근심이나 재난)을 당하여 시절이 불안한데 국가를 받드는 것이 고금(= 예전과 지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의 당연한 일이려니와, 너는 무삼 뜻으로 국가를 돕지 아니하고 도적의 진에 들어가 술법만 베풀고[→ 왜적을 막 죽이고 무찔러 주었어야 속이 시원할 텐데, 겁만 주어 물러가게 한 점이 못마땅한 거겠다.] 종묘사직(= 왕실과 나라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조석(= 썩 가까운 앞날)에 망케 되어도 종시(= 끝내) 돕지 아니하는다?"

하시고 무사를 명하여,

"내어 버히라."[→ 끌어내어 머리를 베라는 말이다. 김순달의 말이 사실인지, 앞뒤 사정을 들어 보지도 않고 죽이라고 한다.]

하시니, 무사 일시에 달려들어 칼춤 추며 덕령을 치니, 덕령은 맞지 아니하고 칼이 세 동강이 나매,[→ 칼로 쳐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다. 이는 덕령이, 그 자신이 원치 않으면 누구도 그를 함부로 죽일 수도 없을 만큼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는 뜻이겠다.] 무사 등이 대경하여 그 연유를 상께 여쭈니,[→ 칼로 쳤는데 안 죽습니다, 하는 얘기를 임금에게 보고했다는 게다.] 상이 대로(= 크게 화를 냄)하사,

"큰 매로 치라."

하시니, 덕령이 주 왈,

"신이 죄는 없사오나 전하께서 신을 죽일 마음이 계시거든 '만고 효자 충신 김덕령(萬古孝子忠臣金德齡)'이라 현판에 새겨 주시면 신이 죽사오되,[→ 후세에 오명이 남게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다. 자신을 '만고 효자'라 불러 달라는 것은 부친상을 엄수하고 어머니 말씀을 순종하느라 전쟁에 제대로 참전하지 못한 사정을 알아 달라는 나름의 해명이 아닐까 싶다. 아울러 스스로 '충신'이라고 자처했으니 임금께 불충하다는 혐의도 결코 원치 않는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그러지 아니하면 여한(= 풀리지 못하고 남은 한)이 되겠나이다."

⇒ 왕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지도 않고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다. 다른 판본에는 '부친상을 당해서 참전하지 못했다'라고 하거나 '청정이 물러나게 했으니 나라를 도운 것'이라 하거나 '어떤 역심도 없다'며 다소의 해명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디에도 그 이상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저항하거나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힘이 엄청나고 자유자재로 도술을 부리는 주인공이 무력하게 죽음을 맞는 장면은 작품의 비극성을 고조시킨다. 이러한 설정은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자 위험을 무릅쓴 영웅을 몰라보는 임금과 대신들의 편협한 안목과 무능을 고발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다. 실존 인물 김덕령은, 1596년 반란을 일으켰다 평정당한 이몽학과 내통했다는 모함을 당해 혹독한 고문 끝에 감옥에서 죽고 말았다. 1661년에야 간신히 그 죄 없음이 밝혀졌다. 김덕령에 대한 서술은 긴 「임진록」에서 몇 페이지 분량밖에 되지 않지만, 이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실존 인물 김덕령의 억울한 죽음을 상기시키는 것이겠다.

하니, 즉시 하령(= 명령을 내림)하여 현판을 새기고,

"죽이라."

하니, 덕령이 주 왈,

"신은 그저는 죽지 아니하오니, 왼쪽 다리 아래 비늘이 있사오니 비늘을 떼고 치면 죽으리라[→ '비늘'은 영웅적인 인물의 비범성을 나타내는 표지라 할 수 있겠다. 겨드랑이에 날개를 단 채 태어나 날아다닐 수 있었다는 아기장수 설화에서의 '날개'와 비슷한 구실을 하는 장치겠다.]."

하니, 무사 일시에 달려들어 비늘을 떼고 한 번 치니, 그제야 죽거늘, 상이 덕령의 죽음을 보시고 시체를 보내게 하시니라.

*** 참고 자료**

「임진록」은 이본이 60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본에 따라 내용도 천차만별이라 연구자들에 따라 그 계열도 여러 갈래로 나뉜다. 당연히 '김덕령 이야기'도 이본에 따라 내용이 많이 다르다. 거기다 '김덕령 전설'도 소설과는 별도로 전국에서 전해져 와서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기는 아주 어렵다. 수록 지문에서 특이한 점은 영웅의 비극적인 결말이다. 작품에 그려진 김덕령은 힘이 장사요, 술법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등 비범한 재주와 능력을 타고나 영웅으로서 손색없는 면모를 다 갖추었다. 그런데도 여느 영웅 이야기의 주인공과 달리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다. 능력을 미처 다 발휘하지 못하고, 청정을 물러나게 한 공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어이없는'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죽음을 천명으로 여기고 순순히 받아들인다. 이 김덕령의 이야기는, 영웅적 주인공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아 복락을 누리는 다른 고전 소설의 주인공들과는 다른 결말을 보여 준다 하겠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4~29] 사회-기술 :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과 무결성 보장 기술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법학 - 형사소송법
디지털 증거, 증거력, 증거 능력,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진정성, 무결성, 증거 부인, 증거 조작
기술 - 컴퓨터 공학 - 암호화 기술
해시 함수, 무결성 보장 기술, 블록 데이터, 검증 데이터, 데이터 재생 공격, 데이터 삭제 공격, 서명 키, 검증 키, 초기 인증값, 임시 검증값

*** 지문 분석**

 # 문단1 : 디지털 증거

1) 형사 재판에 제출되는 **디지털 증거**는 0과 1의 이진수로 이루어진 정보 형태의 증거로, 컴퓨터 파일 등의 전자 문서나 인터넷상의 게시물, 감시용 카메라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동영상 등이 이에 속한다.

⇒ 전자 문서, 인터넷 게시물, 디지털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증거'가 0과 1의 이진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상식적인 얘기보다는, 디지털 증거가 형사 재판에 제출된다는 얘기가 더 중요해 보인다. 일단은 조금 더 읽어 보자.

2) 범죄 사실을 담고 있는 디지털 증거는 증거로서 믿을 만한 가치의 정도인 **증거력**이 높다고 판단될 여지가 크다. 다만 디지털 증거는 형태가 없는 무체물이어서 [형태가 있는] 유체물인 일반 증거에 비해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 집중하자. '디지털 증거'는 범죄 사실을 담고 있을 때 '증거력'이 높다. 즉 증거로서 믿을 만한 가치가 크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는 어떤 형태이든 결국 데이터로 존재하는 만큼[→ 무체물인 만큼],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단다. 이 '증거 능력'이 '증거력'과 어떻게 다른지가 중요해 보이는데……

[주목] '증거 능력'에 대한 설명은 디지털 증거에 국한된 논의가 아니다. 일반 증거 역시 증거 능력의 판단 대상이 된다.

3) **증거 능력**은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자격으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만이 재판에 채택되어 증거력의 판단 대상이 된다.

⇒ 됐다. '증거 능력'은 증거의 자격을 따지는 일종의 예선인 게다. 예선을 통과해야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야만], 본선에 갈 수 있다[→ 증거력이 높은지 낮은지를 따져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증거력이 높아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 증거는 아무 쓸모가 없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겠다.

 # 문단2 :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

1)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르면 어떤 증거가 증거 능력을 갖추려면 먼저 그것이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야 한다.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집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온 것이거나 강요에 의해 얻은 진술 등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맥락 짚기] '증거 능력'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게다. 이 역시 디지털 증거에 국한된 요건이 아님에 유의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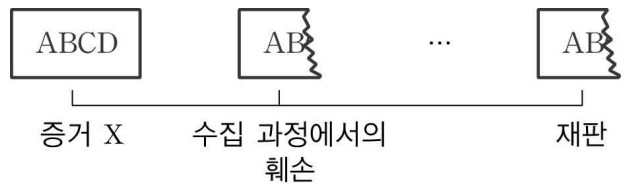
⇒ 증거 능력의 첫 번째 요건이다.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만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증거는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수집되어야만 하며, 진술 역시 강요가 아닌 방식으로 얻어져야만 한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다. 만약 강요에 의해 얻어진 자백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증거력이 높더라도 재판에 채택되어서는 안 될 게다.

2)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르면 **진정성**이 인정되는 증거만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다. '증거 제출자가 제출하려는 바로 그 증거'라는 의미의 진정성은 무결성이 있어야 인정된다.

⇒ 증거 능력의 두 번째 요건이다. 설령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진정성'을 갖추지 않으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무결성'이 있어야만 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된다[→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의 진정성은 '증거 제출자가 제출하려는 바로 그 증거'임을 가리킨단다. 구체적으로 무언가가 떠오르지는 않는다. 좀 더 읽어 보자.

3) **무결성**이란 증거의 수집 과정에서 오류나 수정이 없고,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훼손 내지 변경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 이제야 알겠다. 증거 X의 '수집 과정'에서 오류[→ 증거의 훼손]나 수정[→ 증거의 변경]이 없고, 그 이후에도 증거 X가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훼손이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야만, 증거 X는 증거 제출자가 제출하려는 바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게다. 만약 수집 과정에서 증거 X가 훼손되었거나, 그 이후에 변경되었다면, 증거 X는 증거 제출자가 제출하려는 바로 그 증거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을 게다[→ 무결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게다.].



4) 일반 증거의 경우 [유체물인 만큼] 수집 후 잘 보관하는 것으로 진정성을 얻을 수 있으나 ……

[Rew] 문단1-2)에 따르면, 형태가 있는 일반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수집 과정에서 훼손, 변경이 없고 그 이후에는 잘 보관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5) …… 디지털 증거의 경우 [무체물인 만큼] 진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변경이나 조작이 용이할 뿐 아니라 ……

⇒ 하지만 디지털 증거는 진정성을 검증하기 어렵단다. 아무래도 정보 형태의 증거는 훼손, 변경이 용이하기 때문일 게다. 이건 별로 놀랍지 않은 이야기다. 그런데……

6) ……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알아내기 힘든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Rew] 심지어 디지털 증거는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단다. 디지털 증거의 형사 재판에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게 우리의 과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형사 재판에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증거력이 매우 높은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증거가 사실은 피고인을 싫어하는 누군가에 의해 변경된 증거라면? 그리고 그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면? 이대로라면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은 당연히 부정될 테고, 결국 문단1-3)에 따르면 증거력의 판단 대상이 되지도 못할 게다.

⇒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경이나 조작이 용이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변경이나 조작이 이루어졌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 문단3 : 해시 함수

1) 흔히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은 **해시 함수**를 활용하여 입증한다. 해시 함수는 어떤 디지털 정보를 입력했을 때 그에 대한 일정한 길이의 고유한 문자열인 **해시값**을 출력하는 함수로, 입력값이 조금만 달라도 길이는 같지만 해시값이 크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해시 함수'는 입력값이 '조금만' 달라져도 해시값[→ 출력값]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만약에 디지털 증거의 내용이 '조금만' 변경되어도 해시값은 크게 달라질 테니, 변경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게다.

[Rew] 문단2-5)에서 변경이나 조작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더라도 해시 함수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게다. 해시값이 크게 달라질 테니 말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분명 문단2-6)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그 사실을 알아내기가 힘들다고 했다. 해시 함수가 만능이 아닐 거라는 얘기다.

[참고] '해시 함수'[→ H(x) = k]는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 입력 데이터, x]를 입력받아 일정한 길이의 출력값[→ 해시값, k]을 출력하는 함수이다. 해시값은 입력 데이터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해시값을 통해 입력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방향성]. 또한 서로 다른 입력 데이터가 우연히 동일한 해시값을 가질 확률 역시 0에 수렴한다[→ 충돌 회피성]. 마지막으로 해시 함수는 입력 데이터가 조금만 달라져도 전혀 다른 해시값을 출력한다[→ 눈사태 효과]. 예를 들어 이렇게 띄어쓰기 하나만 달라져도 그 해시값은 완전히 달라진다.

H(디지털 증거) = 8F24D45B278150DF9C014DD8ABC3C796
H(디지털증거) = 3D02C10074EA9BADDBDFFB340511F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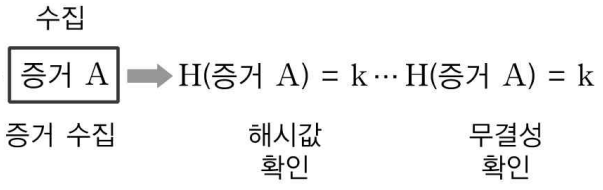
2) 디지털 증거가 수집되면 우선 해시 함수에 넣어 A.해시값을 확인한다. 이후 필요시에[→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시 해시 함수에 넣어 얻은 B.해시값이 A.처음에 얻은 해시값과 같으면 해당 증거의 무결성이 입증된다.

⇒ 그렇겠다.

3) 그런데 수집했던 그 증거가 애초에 증거 제출자가 지목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증거 부인'**의 주장이나, ……

[주목] 여기부터는 문단2-6)에서 언급한 디지털 증거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다. 엄청 중요하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득력 있는 증거라도 재판에 채택될 수 없다[→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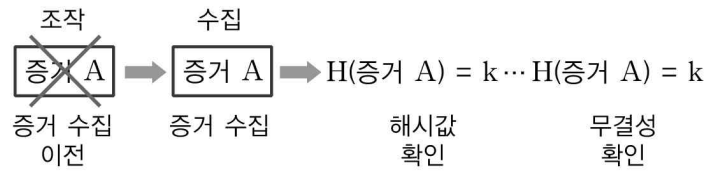
⇒ 집중하자. 수집 이후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애초에 '증거 제출자가 제출하려는 바로 그 증거'가 아니라 다른 증거가 수집되었다는 주장[→ 수집 이전에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다는 얘기다.



⇒ 예를 들어 범죄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 A를 수집하여, 그에 대한 해시값 k를 확인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후 해당 증거를 재판에 채택하고자 동일한 해시 함수에 입력하면 당연히 동일한 해시값 k를 얻을 수 있을 게다. 이때 누군가가 "증거 제출자가 제출하려던 증거는 저게 아니었는데?"라고 주장한다면? 수집한 증거의 해시값을 검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증거 제출자가 제출하려던 또 다른 증거 B의 해시값에 대한 검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 증거 B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공격에 대해 방어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하다.]

4) …… 조작된 후에 수집된 것이라는 **'증거 조작'**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면 무결성이 입증되지 못한다.

⇒ '증거 부인'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다. 증거 수집 이전에 조작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다는 얘기다.



⇒ 예를 들어 2)와 동일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증거 A가 증거 제출자가 제출하려던 증거였던 건 맞는데, 저거 수집되기 이전에 이미 조작된 거야."라고 주장한다면? 수집한 증거의 해시값을 검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증거 제출자가 제출하려던 증거 A는 이미 조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증거 A가 실제로 조작되었는지, 조작되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공격에 대해 방어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하다.]

5) 그래서 자동차의 전후방을 디지털 동영상으로 찍는 차량용 블랙박스 장치에서는 디지털 증거로 사용될 것을 감안하여 동영상을 생성할 때부터 무결성을 담보하는, **'무결성 보장 기술'**을 적용하기도 한다.

[맥락 짚기] 이후부터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로 본격적으로 초점이 옮겨질 게다.

 # 문단4 : 무결성 보장 기술이란?

1) 디지털 동영상 파일은 정지된 이미지 정보인 **블록 데이터**들이 연속된 구조를 띤다.

⇒ 그렇겠다. 동영상 파일도 결국에는 '정지된 이미지'를 시간순대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무결성 보장 기술이 적용된 블랙박스는 블록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무결성 검증에 사용되는 값인 **검증 데이터**도 생성하는데, ……

[Rew] 문단3-5)에 따르면 '무결성 보장 기술'은 동영상[→ 블록 데이터]을 생성할 때부터 무결성을 담보한다. 무결성 검증을 위한 '검증 데이터'를 '블록 데이터'와 함께 생성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다.

3) …… 이때[→ 검증 데이터를 생성할 때] 단순히 각 블록 데이터를 해시 함수에 넣는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면 공격자가 블록 데이터를 대체하거나 조작한 후 그에 대한 검증 데이터까지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w] 맞다. 블록 데이터를 단순히 해시 함수에 넣어 검증 데이터를 생성한다면 여전히 '증거 부인'의 주장이나 '증거 조작'의 주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게다. 공격자가 아예 디지털 증거의 검증 데이터까지 새로이 생성해 버린다면, 검증 데이터도 이미 조작된 만큼, 디지털 증거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여전히 문단2-6)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자면……

4) 즉 블록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전체나 거의 대부분을 교체하는 **데이터 재생 공격**이나, ……

⇒ 먼저 '블록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사실상 전부 교체해 버리는 '데이터 재생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디지털 증거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을 게다.

[참조] '데이터 재생 공격'을 막지 못할 경우, 증거 수집 전에 블록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전부 대체해 버리고, 수집된 블랙박스의 증거는 사실 다른 증거라고 주장하는 '증거 부인'의 공격을 방지할 수 없을 게다. 애초에 '데이터 재생 공격'이 절대 불가능하게 해야만 '증거 부인'의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

5) …… 데이터의 중간 혹은 뒷부분을 삭제하되 [검증 데이터 역시 같은 부분을 삭제하여] 삭제 여부를 알지 못하게 하는 **데이터 삭제 공격**을 막지 못한다.

⇒ 디지털 증거 전부를 교체하는 대신 일부만 삭제하고, 삭제 여부를 알아낼 수 없게 하는 '데이터 삭제 공격'도 가능하단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참조] '데이터 삭제 공격'을 막지 못할 경우, 블록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일부를 삭제해 버리고, 일부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감춘다면, 해당 증거가 이미 조작된 것이라는 '증거 조작'의 공격을 방지할 수 없을 게다. 애초에 '데이터 삭제 공격'이 절대 불가능하게 해야만 '증거 조작'의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

6) 또한 데이터 재생 공격이 있을 때, 특정 블랙박스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그곳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고[→ 애초에 증거 제출자가 지목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증거 부인도 방지하지 못한다.

⇒ 4)의 설명에서 이미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달리 새로운 내용은 없다.

 # 문단5 : 무결성 보장 기술의 과정 1

1) 그래서 블랙박스를 생산할 때에는 [데이터 재생 공격에 의한] 증거 부인의 방지를 위해 제품마다 각기 다른 서명 키와 검증 키의 쌍을 생성한 후 서명 키는 공격자가 접근할 수 없는 블랙박스 내부의 보안 공간에, 검증 키는 제3의 인증 기관에 저장해 둔다.

[맥락 짚기] 이제부터는 문단4의 '데이터 재생 공격'과 '데이터 삭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될 게다.

⇒ '서명 키와 검증 키의 쌍'은 분명 지금까지의 해시 함수와 구별되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이를 활용하면 '증거 부인'의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단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2) **서명 키**는 정보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암호화를 할 때에만, **검증 키**는 이[→ 암호화된 정보를]를 복원하는 복호화를 할 때에만 사용된다. 서명 키는 동영상 파일[→ 블록 데이터들의 연속]마다 첫 번째 블록 데이터가 생성된 직후에 이를 암호화할 때에만 사용된다.

⇒ 지금부터는 상황을 잘 떠올려 가며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어떤 동영상 파일이 다섯 번째 문제의 <보기>처럼 3개의 블록 데이터[→ BD1, BD2, BD3]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자. 먼저 BD1이 생성되면, '서명 키'는 이를 암호화한다. BD1이 암호화된 정보는 오직 제3의 인증 기관에 저장된 '검증 키'를 통해서만 복호화될 수 있단다.

3) 그렇게 암호화한 것을 **'초기 인증값'**이라 하며, 블랙박스는 이 값을 내부의 보안 공간에 저장한다.

⇒ BD1이 암호화된 '초기 인증값'은 서명 키와 함께 내부의 보안 공간에 저장된다.

 # 문단6 : 무결성 보장 기술의 과정 2

1) 블랙박스는 검증 데이터를 생성할 때 '임시 검증값'들을 얻어 메모리에 저장해 두며 활용하는데, 이를 v1, v2, v3 … 등으로 표기한다. v1은 초기 인증값과 동일한 값으로 저장된다.

⇒ 내부의 보안 공간에 저장되는 '초기 인증값'과 달리 '임시 검증값'들은 메모리에 저장된단다. 따라서 v1[→ 첫 번째 '임시 검증값']은 값이 '초기 인증값'과 동일하지만 메모리에 저장될 게다.

v1	초기 인증값

2) 이어 v2는 v1에 두 번째 블록 데이터[→ BD2]를 이어 붙인 후 이 전체를 해시 함수[→ H(x)]에 넣어 얻고, ……

⇒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다. v1 이후의 '임시 검증값'들은 일종의 해시값인 셈이다. BD2 이전에 BD1은 얻다 팔아먹었냐고? 애초에 v1의 초기 인증값이 BD1을 서명 키로 암호화한 것이었다.

v1	초기 인증값[→ BD1의 암호화]
v2	H(v1+BD2)

3) …… v3은 v2에 세 번째 블록 데이터를 이어 붙인 후 이 전체를 해시 함수에 넣어 얻는다.

⇒ 마찬가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다. 결국 n번째 임시 검증값은 n-1번째 임시 검증값에 n번째 블록 데이터를 이어 붙인 후 이 전체를 해시 함수에 넣어 얻는다는 일반화 역시 가능하겠다.

v1	초기 인증값[→ BD1의 암호화]
v2	H(v1+BD2)
v3	H(v2+BD3)

4) 블랙박스는 이와 같은 방식을 따라 블록 데이터가 생성될 때마다, 생성 가능한 임시 검증값을 얻고 이를 토대로 생성 가능한 검증 데이터를 생성하여 저장한다.

[맥락 짚기] 이제부터는 '임시 검증값'을 토대로 검증 데이터[→ VD]를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게다.

⇒ 임시 검증값은 어디까지나 '임시'이고 결국에는 '검증 데이터'를 통해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5) 이때 첫 번째 검증 데이터[→ VD1]는 v1과 v2를 이어 붙인 후 해시 함수에 넣어 얻고, ……

⇒ 마찬가지로 그대로 따라가 보자.

VD1	H(v1+v2)

6) …… 두 번째 검증 데이터[→ VD2]는 v2와 v3을 이어 붙인 후 해시 함수에 넣어 얻는 방식을 따른다.

⇒ 마찬가지로……

VD1	H(v1+v2)
VD2	H(v2+v3)

7) 다만 마지막 검증 데이터[→ VD3]는 마지막 임시 검증값[→ v3]만으로 얻는다.

[주목] 방심하다가 오해하지 말자. v3를 그대로 검증 데이터로 삼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v3만을 해시 함수에 넣어 검증 데이터로 삼는다는 얘기다.

VD1	H(v1+v2)
VD2	H(v2+v3)
VD3	H(v3)

8) 이 과정에서 블랙박스는 각 임시 검증값들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점[→ 각 검증 데이터를 얻은 시점]마다 곧바로 삭제하여 유출을 방지한다.

⇒ 천천히 따라와라. VD1을 얻은 시점에서 v1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v2는 여전히 필요하다. v2는 이후 VD2를 얻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VD1을 얻은 시점에서는 v1만 곧바로 메모리에서 삭제된다. 정리하면……

VD1	H(v1+v2)	v1 삭제
VD2	H(v2+v3)	v2 삭제
VD3	H(v3)	v3 삭제

[참조] 임시 검증값이 필요하지 않게 된 다음에도 삭제되지 않는다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게다. 당장 v1만 해도 '초기 인증값'과 동일하지만 내부의 보안 공간이 아닌 메모리에 저장된다.

 # 문단7 : 무결성 보장 기술의 무결성 입증

1) 공격자는 서명 키나 초기 인증값을 알지 못하므로 v1을 알 수 없고, v1을 알지 못하므로 v2도 알 수 없어서 데이터 재생 공격을 할 수 없다.

⇒ '데이터 재생 공격은' 사실상 기존의 블록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원본 데이터]를 다른 블록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로 대체하는 공격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본 데이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새로운 검증 데이터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Rew] 찬찬히 따져 보면서 문단6의 과정을 그대로 반복해 보자. 먼저 v1을 생성해야 한다[→ 기존의 v1은 원본 데이터의 VD1이 생성된 시점에서 이미 삭제되었다.]. 하지만 이는 v1에 사용되는 초기 인증값의 생성에 필요한 '서명 키'에 접근할 수 없는 만큼 불가능하다. v1을 생성할 수 없으니 v1을 포함하는 v2[→ H(v1+BD2)]도 생성할 수 없다. 당연히 임시 검증값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검증 데이터 역시 생성할 수 없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전체를 교체하는 데이터 재생 공격은 불가능해진다.

2) 또한 특정 순번의 검증 데이터에는 해당 순번의 앞뒤 쪽 블록 데이터가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공격자가 데이터 삭제 공격을 할 수도 없다.

⇒ 마찬가지로 찬찬히 따져 보자. 공격자가 중간에 위치한 BD2와 VD2만을 삭제하는 '데이터 삭제 공격'을 계획했다고 가정해 보자. 검증 데이터 중에서는 VD1과 VD3만 남을 게다. 하지만 애초에 VD1은 기존의 v2를 토대로 생성되고, VD3에 포함된 v3 역시 기존의 v2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위치한 데이터가 삭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데이터 일부를 삭제하는 데이터 삭제 공격은 불가능해진다.

3) 한편 무결성 검증을 할 때에는 먼저 보안 공간에 저장해 둔 초기 인증값을 인증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검증 키로 복호화하여 첫 번째 블록 데이터[→ BD1]와 일치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증거 부인이 방지되었음을 입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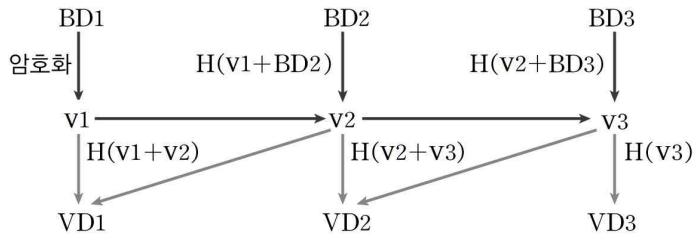
[맥락 짚기] 마지막으로 실제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데이터 재생 공격'과 '데이터 삭제 공격'을 방지함으로써 어떻게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게다.

⇒ 초기 인증값[→ BD1의 암호화]은 공격자가 침범할 수 없는 내부의 보안 공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를 제3의 인증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검증 키로 복호화하면 BD1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얻은 BD1과 현재의 BD1을 비교해 봄으로써 데이터 재생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 '증거 부인'의 주장이 방지된다.].

4) 나머지 블록 데이터들[→ BD2, BD3]의 무결성은 [저장되어 있는] 검증 데이터를 생성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검증 데이터들[→ VD1, VD2, VD3]을 생성한 후, 저장되어 있는 검증 데이터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입증한다.

⇒ VD1을 생성하려면 v1과 v2가 필요하다. v1은 [이미 검증된] BD1을 토대로 생성되며, v2는 v1과 BD2를 토대로 생성된다. 따라서 기존의 BD2가 교체되었거나 삭제되었다면 VD1 역시 달라질 게다. 이렇듯 n번째 임시 검증값은 n−1번째 임시 검증값과 n번째 블록 데이터를 토대로 생성되며, n번째 검증 데이터는 n번째 임시 검증값과 n+1번째 임시 검증값을 토대로 생성된다. 결국 검증 데이터는 마치 사슬처럼 직전과 직후 임시 검증값의 영향을 모두 받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부가 삭제되는 데이터 삭제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 '증거 조작'의 주장이 방지된다.].

[주목] 됐다. 정리하자면, '무결성 보장 기술'은 '증거 부인'의 공격과 '증거 조작'의 공격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어 주는 기술이다.



이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30~33] 인문 : 통 속의 뇌 논증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서양 철학 - 인식론 - 회의론, 실재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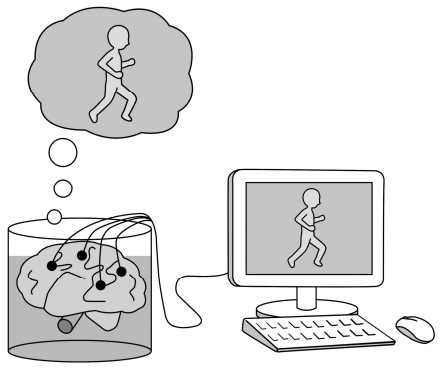
'통 속의 뇌 논증', 감각 지각, 회의주의, 무어, 상식적 실재론자, 직접적 실재론자, 회의주의자, 논점 선취의 오류, 휴머, 가설 선호 원리, 간접적 실재론자

*** 지문 분석**

 # 문단1 : '통 속의 뇌 논증'

1) 내가 사실은 컴퓨터에 연결된 통 속의 뇌에 지나지 않고, 지금 두 손을 보고 있는 나의 경험은 컴퓨터가 보내는 전기 신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 황당한 발상이다. 이토록 확실해 보이는 나의 존재가 통 속에 담겨 컴퓨터의 조작된 신호를 받는 뇌에 불과하다니.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 달리 철학자들은 인식 존재의 확실성과 외부 세계의 실재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2) 그런데 이 가능성을 배제할 어떠한 증거도 갖고 있지 못하므로 '나는 통 속의 뇌가 아니다.'라는 나의 믿음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

⇒ '내가 컴퓨터에 연결된 통 속의 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박할 증거가 없단다. 따라서 '나는 통 속의 뇌가 아니다.'라는 상식적 믿음 역시 정당화되지 않는단다. 그렇다면 컴퓨터 앞에 앉아 모의고사 해설을 쓰고 있는 나는 컴퓨터에 연결된 뇌가 보내는 전기 신호에 불과하다는 건가? 이런 황당한 발상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반박할 증거가 없단다. 당황스럽다.

3) …… '나는 두 손을 갖고 있다.'라는 믿음 역시 정당화되지 않는다.

⇒ 그러면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 믿음 역시 확실한 건 아니게 된다.

[참고] 믿음의 정당화는 '지식의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통적으로 지식은 '정당화된 참인 믿음'으로 정의된다. 이는 나의 믿음이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사실[→ 참]이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근거를 내가 갖고 있어야 한다[→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위의 '통 속의 뇌 논증'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어 온 상식적 믿음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즉 지식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4) 이와 같은 **'통 속의 뇌 논증'**은 감각을 통한 지각인 **'감각 지각'**의 신뢰성을 의심함으로써 정신 바깥의 외부 대상이 실재한다는 우리의 상식적 믿음이 사실은 지식이 아니라는 **회의주의**를 옹호한다.

⇒ '감각 지각'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이 '통 속의 뇌 논증'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회의주의를 옹호한다는 거다.

외부 대상 [→ 두 손]	⇨	감각 [→ 두 손을 보는 것]	지각 ⇨	감각 지각 [→ 두 손의 실재성을 확인]	⇨	신뢰함	상식적 믿음
						의심함	회의주의

[참조] 데카르트는 '자신의 감각이나 육체가 실재함을 믿을 수 없어서 외부 사물의 실재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 수학적 지식은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상식에는 꿈속이라 할지라도 수학적 지식, 이를테면 1 더하기 1은 2라는 지식은 확실해 보인다. 그런데 만약 전지전능한 악마가 있어서 1 더하기 1은 3인데도 나에게 2라고 속이고 있는 거라면? 악마의 존재를 가정하는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은 수학적 지식조차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데카르트는 이런 의심에 의심을 거듭한 끝에, '의심에 대해 생각하는 나의 존재'는 절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다. 데카르트가 회의론자라는 얘기는 아니다.

5) 감각 지각[→ 인식의 방법으로서 감각을 통한 지각]이라는 인식 방법의 신뢰성을 입증하면 이 입장[→ '통 속의 뇌 논증'으로 옹호되는 회의주의]을 반박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입증을 위해 필요한 신뢰성의 검사 방법 역시도 신뢰성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 '통 속의 뇌 논증'을 반박하려면 '감각을 통한 지각의 신뢰성'을 입증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신뢰성의 검사 방법' 역시도 신뢰성이 입증되어야 한단다. 그렇다면 '신뢰성의 검사 방법에 대한 신뢰성'을 또 검사해서 신뢰성을 입증해야 하겠다.

6) 결국 신뢰성 입증의 요구가 무한히 이어질 것이므로 감각 지각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 그렇겠다. 신뢰성의 검사, 신뢰성의 검사 방법의 신뢰성에 대한 검사, 신뢰성의 검사 방법의 신뢰성에 대한 검사 방법의 신뢰성의 검사……가 무한히 이어지겠다. 어쩐다? 그냥 내가 통 속의 뇌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나?

 # 문단2 : 직접적 실재론에 대한 회의주의의 비판

1) 이[→ 감각 지각의 신뢰성 입증]와 관련하여 무어로 대표되는, 상식적 실재론자 혹은 직접적 실재론자들은 감각 지각의 신뢰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감각 지각에 의해 얻어진 믿음이 참인지를 개별 사례마다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맥락 짚기] 회의주의를 옹호하는 '통 속의 뇌 논증'에서, 이와 대비되는 '실재론'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 회의주의에 대한 직접적 실재론자들의 반박이다. 철학에서 '실재론'은 외부 세계가 우리의 의식과 독립적으로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실재론에도 여러 입장들이 있나 보다.

⇒ 그중 직접적 실재론자들은 매우 상식적인 주장을 펼친다. 감각 지각에 대한 신뢰성은 증명조차 시도하지 않는다. 감각 지각을 통해 얻어진 믿음은 '그냥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2) 그들은[→ 직접적 실재론자들은] '통 속의 뇌 논증'에 대항하여[→ 맞서서] 자신의 두 손을 흔들면서 '나는 두 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나는 통 속의 뇌가 아니다.'라는 반박 논증을 제시한다.

⇒ 직접적 실재론자들이 감각 지각에 의해 얻어진 믿음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상술하고 있다. 그냥 두 손을 흔들기만 하면 증명이 끝난다. 매우 상식적이고 소박한 증명이다. 이때 '두 손을 흔들었다는 것'은 특정한 방법으로 증명했다기보다는 너무 분명하고 당연한 것은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 이들에 따르면, 회의주의자들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사람들일 뿐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3) 이[→ 직접적 실재론자들의 반박 논증]는 지금 내가 흔들고 있는 바로 이 손이 외부 대상으로 실재한다는 것은 감각 지각에 의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 핵심은 '직접'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직접 알 수 있는가? 외부 대상인 '내가 흔들고 있는 손'을 감각 지각을 통해 직접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각 지각에 의해 알 수 있다는 점은 '내가 흔들고 있는 손은 실재한다.'라고 반박하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다. 너무 상식적이어서 쉽사리 부정하기도 어려운 증명 방법이지만, 뭔가 어수룩해 보인다. 증명을 하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4) 그런데 **회의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직접적 실재론자들의 반박 논증]는 논점 선취의 오류를 범한다. **논점 선취의 오류**란 논증을 통해 참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주장을 미리 참으로 간주하여 논증의 전제로 삼는 순환적인 논증의 오류로, ……

⇒ 직접적 실재론자들에 대한 회의주의자의 반박이다. "직접적 실재론자 너희들의 반박 논증은 입증되어야 할 주장을 미리 참으로 여기고 바로 그걸 가지고 다시 주장의 전제로 삼았어. 그러니까 그건 논점 선취의 오류라고!" 회의주의자들은 이렇게 외칠 거다.

[참고] '논점 선취의 오류'는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결론을 슬며시 전제로 사용하는 논증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신의 말은 진리이다. 성서에 쓰인 것은 신의 말이다. 성서가 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에 써 있다. 그러므로 성서가 신의 말이라는 것은 진리이다." 이것은 결론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삼는 순환적인 논증의 오류가 된다.

5) …… 감각 지각의 신뢰성을 보임으로써 이끌어 내야 할 주장인 외부 대상의 실재에 관한 앎[→ 참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주장]을 미리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렇다. 직접적 실재론자의 증명 방법이 뭔가 이상해 보였는데, 그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결국 직접적 실재론자의 주장은 '외부 대상이 눈앞에 있으니까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외부 대상의 실재에 대한 앎'이 주장인데, 그 주장을 증명하지는 않고 그 주장이 맞다는 전제하에 논증을 펼쳤다는 거다.

 # 문단3 : 휴머의 '가설 선호 원리'

1) **휴머**는 이[→ 직접적 실재론자들의] 반박 논증이 논점 선취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밝히기 위해, 논점 선취의 오류가 언제 범해지는가를 설명해 주는 **'가설 선호 원리'**를 제시한다.

⇒ 아이고, 좀 복잡해진다. 휴머가 인식론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접적 실재론자들의 주장이 논점 선취 오류에 해당하는지 검증한단다. 이를 위해 '가설 선호 원리'를 적용해 보겠다는 말이다.

⇒ 지금까지 입장들의 흐름은 이런 거다.

'통 속의 뇌 논증'	외부 대상이 실재한다는 믿음이 사실은 지식이 아니라는 회의주의자들의 입장을 옹호한다.
⇩	
직접적 실재론	감각 지각에 의해 얻어진 믿음이 참인지를 개별 사례마다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회의주의에 대한 직접적 실재론의 반박 논증	자신의 손을 흔들며 '나는 두 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나는 통 속의 뇌가 아니다.'
⇩	
회의주의자들의 반박	직접적 실재론은 '논점 선취의 오류'를 범한다.
⇩	
휴머의 검증	직접적 실재론자들이 논점 선취의 오류를 범하는지 본다. ⇨ '가설 선호 원리'로 밝혀 봄

2) 이[→ 가설 선호 원리]에 따르면 H_1과 H_2가 관찰된 현상을 똑같이 잘 설명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가설들이라면, ……

⇒ 이를테면 이런 거다. '국어 성적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전 과목 성적도 높다.'라는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하자. 이감이는 가설 H_1인 '국어 성적이 뛰어나면 다른 과목에 대한 이해력도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다. 한편 봉소는 '머리가 좋으면 국어 성적도 뛰어나고 다른 과목 성적도 뛰어나다.'라는 가설 H_2를 주장한다. 이렇게 H_1과 H_2가 서로 경쟁하는 가설들이라면……

3) …… H_1을 주장하는 자가 H_2를 반박하는 증거로 자신의 주장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과 독립적인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H_1은 H_2보다 더 선호된다.

⇒ H_1을 주장하는 이감이는 H_2를 반박하는 증거로 '머리가 좋으면서도 국어 성적을 비롯한 다른 과목의 성적이 나쁜 학생의 의미 있는 통계치'나, '머리가 좋지 않지만 국어 성적과 다른 과목의 성적이 뛰어난 학생의 의미 있는 통계치'를 제시했다고 하자. 이럴 경우에 가설 H_1이 선호된다. 이름 그대로, 선호되는 가설이라는 거다.

4) 이와 달리 H_1을 주장하는 자가 H_2를 반박하는 증거로 자신의 주장 그 자체나 자신의 주장에 의존하는 것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H_1이 H_2보다 더 선호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의 반박은 논점 선취의 오류로 간주된다.

⇒ H_1을 주장하는 이감이가 H_2를 반박하는 증거로 '글을 독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국어 성적도 뛰어나고 다른 과목 성적도 뛰어나다.'를 제시한다고 하자. 이 반박 증거는 이감이 자신의 주장 H_1과 다르지 않다. 이 경우는 논점 선취의 오류로 간주한다는 말이다. 정리해 보자.

'가설 선호 원리'에 따르면 H_2에 대한 H_1의 반박 증거가

① 자신의 주장 H_1과 다름 ② 자신의 주장 H_1과 독립적인 것을 제시함	⇨	H_1은 H_2보다 더 선호됨
① 자신의 주장 H1 그 자체 ② 자신의 주장 H_1에 의존하는 것을 제시함	⇨	논점 선취의 오류로 H_1은 부정됨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문단4 : 간접적 실재론, 직접적 실재론에 대한 휴머의 입장

1) 휴머에 따르면 직접적 실재론자와 달리 간접적 실재론자는 통 속의 뇌 논증을 반박할 때 논점 선취의 오류를 범한다.

[맥락 짚기] '간접적 실재론자'가 처음 등장했다. 휴머의 이론으로 직접적 실재론과 간접적 실재론을 모두 점검하는데, 앞서 등장한 직접적 실재론이 아니라 간접적 실재론부터 먼저 점검하고 있다. 어쨌든 간접적 실재론은 직접적 실재론과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에 집중하며 읽으면 좋겠다.

⇒ 휴머의 주장에 따르면, '간접적 실재론자'들만 통 속의 뇌 논증을 반박하면서 오류를 범했다는 거다. '간접적 실재론자'들의 입장은 직접적 실재론자와 어떻게 다른 걸까?

2) 간접적 실재론자들은 외부 대상의 실재를 감각에 의해 정신에 주어지는 감각 자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보는데, ……

⇒ 직접적 실재론과의 차이점이다. 직접적 실재론은 감각 지각으로 외부 대상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해 간접적 실재론은 '정신에 주어진 감각 자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다. 즉 우리가 실제 외부 대상을 직접 접할 수는 없고 머릿속에 주어진 감각의 결과물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외부 대상을 알 수 있다는 거다. 감각 자료는 말 그대로 감각에 의해 주어진 자료가 되겠다.

[참조] '감각'과 '감각 자료'는 다를까? 감각은 1차적인 우리의 오감을 말한다. 오감을 통해 생성된 시각적 이미지, 소리, 냄새 등이 감각 자료가 된다. 인간은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보지 못하고, 가시광선의 파장 내에서 세계를 인식한다. 반면 뱀은 적외선을 감지하기 때문에 마치 적외선 투시 카메라와 같은 세계를 본다. 흰 눈이 오는 날 강아지가 흥분하는 이유는 심한 근시인 데다가 흑백만 구분하기 때문이다. 같은 눈 오는 장면을 보더라도 인간의 감각 자료, 뱀의 감각 자료, 강아지의 감각 자료가 각기 다르다. 간접적 실재론은 이러한 '정신에 주어진 감각 자료'를 통해서만 외부 대상의 실재를 알 수 있다고 본다.

3) …… 그들에게[→ 간접적 실재론자들에게] '나는 두 손을 갖고 있다.'라는 믿음 B는 감각 자료에 대한 앎으로부터 추론되는 믿음으로서 가설의 지위를 지니기 때문이다.

⇒ 일단 '믿음 B'가 가설이라는 것부터 챙기자. 휴머의 가설 선호 원리에 따르면 논점 선취의 오류를 범하려면 우선 믿음 B는 가설이어야 한다. 간접적 실재론자들의 믿음 B는 감각 자료에 대한 앎으로부터 '추론'되는 믿음이므로 '가설' 맞다. 그렇다면 믿음 B는 휴머의 가설 선호 원리의 적용 대상이 되고, 논점 선취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4) 즉, 가설 선호 원리에 따르면 '컴퓨터가 통 속의 뇌로 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회의주의자의 가설'을 반박하는 증거로 간접적 실재론자가 자신의 주장인 믿음 B를 내세우면 이는 논점 선취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Rew] 문단3-4)에서 '반박하는 증거로 자신의 주장 그 자체나 자신의 주장에 의존하는 것을 제시하는 경우'가 논점 선취 오류를 범할 때임을 떠올려야겠다.

5) 반면 직접적 실재론자는 믿음 B가 감각 지각에 의해 직접적으로 얻어진 믿음으로서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라고 간주한다. 이들에게 믿음 B는 가설이 아닌 것이다.

[Rew] 문단2-1)에서, 직접적 실재론자들은 감각 지각에 의해 얻어진 믿음을 '개별 사례마다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개별 사례마다 곧장 판단할 수 있다면 직접적 실재론자들에게 믿음 B는 일반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일반화는 가설을 통한 정당화 과정을 거친다. 이에 따라 믿음 B는 가설이 아닌 것이 된다.

⇒ 직접적 실재론자들에게 믿음 B는 감각 자료로부터 '간접적'으로 추론된 믿음이 아닌 직접적 믿음이다. 직접적 실재론자들의 믿음 B는 가설이 아니므로 가설 선호 원리에 의하면 논점 선취 오류도 범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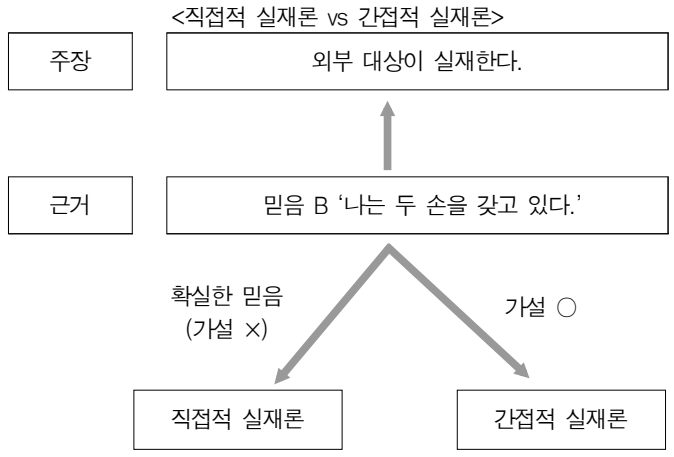
6) 따라서 그것은[→ 직접적 실재론자들의 믿음 B는] 회의주의자의 가설과 경쟁하지 않으며 가설 선호 원리를 적용할 필요도 없으므로, 그가 제시한 반박 논증은 논점 선취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 그렇다. 가설이 없으니까 경쟁할 가설도 없고, 가설 선호 원리를 적용하려야 적용할 수 없다. 당연히 오류도 범하지 않겠다.

7) 다만 [직접적 실재론의 믿음 B가] 감각 지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증거가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감각 지각에 의한 믿음 역시 가설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그럴 때에 한해 반박 논증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 만약 '나는 두 손을 갖고 있다.'라는 직접적 실재론의 믿음 B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직접적 실재론의 믿음 B도 가설이 된다. 이때는 논점 선취 오류에 해당하게 되므로 직접적 실재론의 반박 논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다.

<직접적 실재론 vs 간접적 실재론>



이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34~37] 고전시가 : (가) 윤선도, 「만흥」

*** 작품 평가**

꼼꼼히 챙겨 두자. 연시조 전문이 출제되거나, 그중 일부만 <보기>에 나오기에도 좋은 작품이다. 분석은 EBS 수록본으로 익혀 두자.

*** 작품 분석**

 # 제1수

산슈 간(山水間) 바회[→ 바위] 아래 뛰집[→ 띠 풀로 엮은 집]을 짓노라 ᄒᆞ니

→ 산수 간 바위 아래 오막살이를 지으려 하니

그 모론 놈들은 웃ᄂᆞᆫ다 ᄒᆞᆫ다마ᄂᆞᆫ

→ 그 [깊은 뜻을] 모르는 남들은 [나를] 비웃지만

어리고 햐암[→ 향암(鄕闇). 시골에 살아 세상을 아는 바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의 뜻의ᄂᆞᆫ 내 분(分)인가 ᄒᆞ노라

→ 어리석은 시골 늙은이의 뜻으로는 [이런 초탈한 삶이야말로] 내 분수에 맞는가 하노라.

⇒ '뛰집'은 **안빈낙도의 삶의 방식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어리고 햐암'은 표면으로는 자신이 어리석다는 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대부로서의 바른 정신을 지닌 사람임을 뜻한다.

 # 제2수

보리밥 픗ᄂᆞ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횟 긋 믉ᄀᆞ의 슬ᄏᆞ지 노니노라

→ 바위 끝 물가에 실컷 노니노라.

그 나믄 녀나믄[→ 여남은] 일이야 부ᄅᆞᆯ[→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

→ 그 [소박한 삶] 이외의 여러 [세속적인] 일들은 부러워할 줄이 있겠는가.

⇒ <제2수>에서 시어들의 대립은 **안빈낙도의 삶과 세속 잡사 사이의 대립**이다.

보리밥 픗ᄂᆞ물, 바횟 긋, 믉ᄀᆞ vs 그 나믄 녀나믄 일

 # 제3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흘 ᄇᆞ라보니

→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옴이 이리 ᄒᆞ랴

→ 그리워하던 임이 온다 [하여도] 반가움이 이만하겠는가.

말ᄉᆞᆷ도 우ᄆᆞᆷ도 아녀도 몯내 됴하 ᄒᆞ노라

→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말도 나누지 않고 웃음도 나누지 않아도] 못내 좋아하노라.

⇒ 말도 나누지 않고 굳이 웃음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마음이 하나로 통해 있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물아일체(物我一體)**라고 불렀다.

 # 제4수

누고셔[→ 누군가가] 삼공(三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높은 벼슬의 대명사]도곤[→ 보다] 낫다 ᄒᆞ더니 만승(萬乘)[→ 백승은 제후, 천승은 왕, 만승은 황제의 권력을 말하는 관용어이다. '승(乘)'에는 진시황릉의 병마용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전차'를 가리키는 뜻이 있다. 전차 만 대를 움직이는 권력]이 이만 ᄒᆞ랴

→ 누군가가 [자연에 귀의한 삶이]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내가 실제로 해 보니] 만승 천자가 이만하겠는가.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ㅣ 낙돗더라[→ 약았더라. 현명했더라.]

→ 이제로 헤아린다면 소부 허유[의 초탈한 삶이 천자의 삶보다] 나은 것이었다.

아마도 님쳔 한흥(林泉閑興, 자연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즐거움)을 비길 곳이 업세라

→ 아마도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흥겨움을 즐기는 것은 비길 곳이 없도다.

⇒ 시어에서 '삼공'을 '만승'과 구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속적 출세**를 의미하는 같은 부류의 말들이다.

삼공, 만승 vs 소부 허유

[참고] 소부 허유 : 요임금이 허유에게 자기 대신 황제를 맡아 달라고 했다. 허유는 세속의 권력이 싫어서 도망쳤다. 기산에 가서 숨어 영수라는 물에 귀를 씻었다. 이를 본 소부가 물었다. 뭐 해? 귀 씻어. 왜? 더러운 말 들었어. 뭔데? 나더러 천자하래. 말 듣고 놀란 소부가 자기 소를 끌고 상류로 도망쳤다. 그런 말을 들어 더러워진 귀를 씻은 더러운 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다고. 그래서 소부 허유는 세속을 초탈한 사람의 대명사로 쓰인다.

 # 제5수

내 셩이 게으르더니 하ᄂᆞᆯ히 아ᄅᆞ실샤

→ 내 성품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그것을] 아시어

인간 만ᄉᆞ(人間萬事)를 ᄒᆞᆫ 일도 아니 맛뎌

→ 인간 만사를 한 가지도 안 맡겨

다만당 ᄃᆞ토리[→ 다툴 이가] 업슨 강산(江山)을 딕희라[→ 지키라] ᄒᆞ시도다

→ 다만 다툴 이[가] 없는 자연을 지키라 하시는구나.

⇒ '게으르다'는 문맥적으로 세속 일에 관심과 욕심이 없는 **초탈한 성품**을 의미한다. 옛사람들은 자연은 세속적 권력이나 부와는 달라서 다투고 빼앗고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풍월주인(風月主人)'**이라는 말로 나타냈다.

인간 만ᄉᆞ vs '강산을 딕희'는 일

 # 제6수

강산(江山)이 됴타[→ 좋다] ᄒᆞᆫᄃᆞᆯ 내 분(分)으로 누얻ᄂᆞ냐

→ 강산이 좋다 하나 [내가] 내 분수로 [이만한 복을 누리고] 누울 수 있었겠는가.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옥 아노이다

→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 것 같다.

아므리 갑고쟈 ᄒᆞ야도 ᄒᆡ올 일이 업세라

→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해 드릴 일이 없구나.

⇒ 주제가 임금에 대한 **연군지정**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대부의 도리에서 '임금을 보좌하여 나라를 다스림'과 '세속을 초탈하여 성인의 도를 추구함'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고 병치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안빈낙도의 연장선상에 연군지정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 주제 :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의 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삶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38~42] 예술 : 예술 작품의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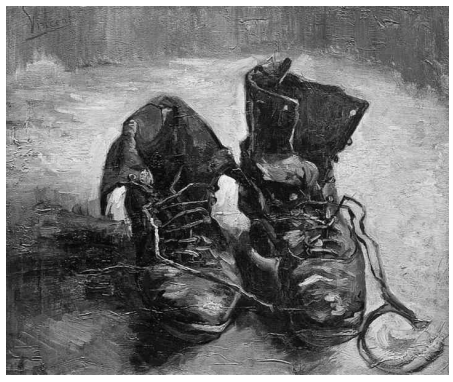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예술 - 미학 - 작품 해석론
고흐, 「구두」, 해석, 해석 객관론, 해석 상대론, 캐럴, 해석학적 순환, 우드, 「아메리칸 고딕」

*** 지문 분석**

 # 문단1 : 작품 해석에 관한 다양한 입장

1) 가죽이 해지고 끈도 느슨해진 구두 한 켤레가 황톳빛 배경에 거칠게 묘사되어 있는 **고흐**의 **「구두」**에 대해 두 해석이 알려져 있다.
   ⇒ 낡은 구두를 그린 고흐의 그림은 하나이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게다.



빈센트 반 고흐, 「구두」(1886)

2) 낡은 구두가 농부의 성스러운 노동과 대지의 신비를 의미한다는 해석과, 작가 자신의 실존적 고뇌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 두 가지 해석 중 하나는 그림 속의 구두를 신었을 농부의 노동과 노동의 터전인 대지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구두를 그린 작가 자신의 고뇌에 관한 것이라 한다.
3) **해석**은 작품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실들에 대한 기술(記述)에 근거하여 작품의 의미를 캐내는 작업인데, 이처럼 여러 해석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
   ⇒ 해석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다. 해석은 작품의 의미를 캐내는 것인데,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근거는 확인되는 사실에 대한 기술이어야 한다.
   ⇒ 사실에 대한 기술에 근거를 둔 해석이 어떻게 여러 개일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질문을 통해 이 지문의 화제가 제기되고 있다.
4) 이와 관련하여 각 작품에는 하나의 참인 해석만 있다는 **'해석 객관론'**과 믿을 만한 여러 해석들이 있다는 **'해석 상대론'**이 대립하는데, ……
   ⇒ '여러 해석을 용납할 것인가? 용납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대립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단다. 용납할 수 없다는 쪽이 '해석 객관론'이고, 용납할 수 있다는 쪽이 '해석 상대론'인 게다.
5) …… **캐럴**은 두 입장이 각기 직면하는 난점을 피해 절충적 입장을 취하였다.
   ⇒ 대립적인 두 입장에 각각 난점이 있나 보다. 어느 한쪽을 완벽하다 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 난점을 피하고 장점을 취해 절충적 입장을 제시한 사람이 캐럴인 거다.

 # 문단2 : 해석 객관론

1) 해석 객관론은 작품의 의미가 작품 자체에 내재해 있으며, 작가의 의도가 어떠한 형식으로 작품에 구현되면서 작품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그 의도 자체가 의미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먼저 해석 객관론은……

> ① 해석의 대상이 되는 의미는 작품 자체에 내재해 있다.
> ② 작가의 의도는 특정한 형식으로 작품에 구현된다.
> ③ 작품에 구현된 작가의 의도가 작품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의도 자체가 의미인 것은 아니다.

   ⇒ 작가도 작품 자체에 내재한 존재가 아니라 작품의 외부에 있는 존재이므로 작가의 의도가 곧 작품에 내재한 의미일 수는 없겠다.
2) 결국 작품 내부의 요소들에 대한 기술들은 모두 사실과 관련된 것이어서 참, 거짓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석자의 주관을 투사할 필요 없이 참인 기술들을 근거로 삼으면 유일한 참인 해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 해석 객관론이 참인 해석을 하나로 보고, 여러 개의 해석을 용납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의미 해석의 근거가 되는 기술들은 '사실'과 관련된 것이므로 참이거나 거짓이라는 거다. 참인 기술에 근거를 둔 해석은 참일 것이며, 거짓인 기술에 근거를 둔 해석은 거짓일 것이다.
   ⇒ 또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기술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것에서 시작하므로 여기에는 해석자의 주관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한다.

 # 문단3 : 캐럴에 따른 해석 객관론의 난점

1) 그런데 캐럴에 따르면 해석 객관론은 작품 속의 수많은 사실 중 일부만을 택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힘든 난점에 직면한다.
   ⇒ 캐럴이 제기한 해석 객관론의 난점이 제시되어 있다. 작품을 해석할 때 작품에 내재한 사실 전부를 근거로 삼아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게다.
2) 작품 내부에서 파악되는 모든 사실들을 종합하여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여러 기술들 중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때 해석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 사실에 관한 기술 중 일부를 선택하고 다른 일부를 버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 해석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하게 된다는 거다. 그렇다면 해석자마다 자신의 주관에 따라 선택한 기술들이 다를 것이고 이에 따라 해석도 해석자마다 달라질 것이다.
3) 캐럴은 해석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해석에 따라 그에 유리한 기술들만 근거로 삼는다고 본다.
   ⇒ 해석자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곧 해석자의 주관과 편견이 되겠다.
   ⇒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해석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해석자가 원하는 방향이 '종교적 깨달음'인 경우와, '민족적 자존'인 경우에 해석자가 선택하는 사실에 대한 기술들은 달라질 수 있을 게다. 그 기술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각기 다른 기술을 근거로 삼은 해석들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참인 진술을 근거로 해석을 해도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게다.
4) 예컨대 「구두」를 농부의 노동으로 해석하려는 이는 구두에 흙이 스며들어 있다는 기술에 주목할 것이고, 작가의 고뇌로 해석하려는 이는 마치 자화상을 그리듯 구두를 그렸다는 기술에 주목할 것이다.
   [Rew] 문단1-2)에서 언급된 해석들까지 묶어서 정리해 보자.

해석의 방향	방향에 따라 선택된 기술	기술에 근거한 해석
농부의 노동	구두에 흙이 스며들어 있다.	낡은 구두가 농부의 성스러운 노동과 대지의 신비를 의미한다.
작가의 고뇌	자화상을 그리듯 구두를 그렸다.	낡은 구두가 작가 자신의 실존적 고뇌를 의미한다.

   ⇒ 해석의 방향에 따라, 해석자들이 주목한 기술이 달라지고, 각기 다른 기술에 근거를 둔 해석 또한 달라지게 되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5) 캐럴에 따르면 이처럼 특정 해석이 스스로 근거로 삼을 기술의 선택에 편향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선택된 기술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상황을 **해석학적 순환**이라 한다.

⇒ 해석학적 순환이 설명되고 있다.

① 해석자의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하려 함
↓
② 방향에 따라 기술을 선택함
↓
③ 선택한 기술을 근거로 작품을 해석함
↓
④ 이 해석에 맞는 기술을 선택함

⇒ 문제는 ④는 결과적으로 ②와 같다는 거다. 한마디로 '기술 선택'과 '해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계속 순환된다는 거다.

 # 문단4 : 캐럴에 따른 해석 상대론의 난점

1) 그렇다고 하여 캐럴이 해석 상대론에 온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 해석 객관론의 난점을 지적한 캐럴은 해석 상대론 역시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캐럴은 절충안을 제시했나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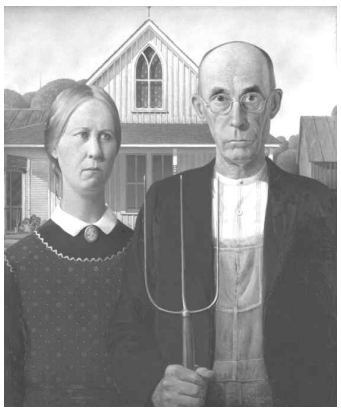
2) 해석 상대론은 특정 작품에 대한 해석들을 모두 동등하게 참이라고 여기는데, 캐럴에 따르면 이 입장은 양립하기 힘든 모순적인 두 해석을 인정하면서 그것들이 모두 한 작품에서 유래한 것으로 믿어야 하는 난점에 직면한다.

⇒ 캐럴은 한 작품에 대한 다른 해석들을 용인할 수는 있으나 양립하기 힘든 모순적인 두 해석이 모두 동등하게 참이라고 여기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다.

[참고]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남자이다.'와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여자이다.' 같이 동시에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될 수 없는 관계를 모순 관계라 한다.

3) 예컨대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에는 남녀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를 아내로 보는 해석과 딸로 보는 해석이 알려져 있다.

⇒ 그림 속의 남녀가 부부라는 해석과 부녀라는 해석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해석이겠다. 그림 속의 여자가 아내로 보이는가? 딸로 보이는가?



그랜트 우드, 「아메리칸 고딕」(1930)

4) 이 [양립하기 힘든 모순적인] 두 해석을 모두 참으로 여기면 해석이 바로 그 작품에 의존한다는 믿음이 유지되기 힘들며, 결국 해석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 한 작품에 대한 모순적인 두 해석을 모두 참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어떤 해석도 모두 참으로 인정된다면, 굳이 작품을 해석할 필요가 있겠냐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 문단5 : 캐럴의 절충안

1) 두 입장이 지닌 한계들을 지적하면서, 캐럴은 작품이 작가의 의도에 의한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 해석 객관론과 해석 상대론의 난점을 모두 지적한 캐럴이 절충안을 제시하기 위해 주목한 것은 '작품이 작가의 의도에 의한 산물'이라는 거다.

[맥락 짚기] 작가의 의도가 작품에 구현된다는 것은 '해석 객관론'의 입장과 같다. 캐럴의 생각이 '객관론과 100% 같을 리는 없으므로 '객관론'과 어떤 점이 다른 것인가에 집중해야겠다.

2) 캐럴에 따르면 작가의 의도는 작품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의도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참인 해석에 다가가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 여러 해석들 중에서 참인 해석에 가까운 것을 고르려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할 터인데, 캐롤이 일정한 기준의 근거로 내세웠던 것이 '작가의 의도'라는 말이다.

3) 그래서 캐럴은 작품 내의 정보에 대한 내적 기술과 구분되는, 외적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Rew] '해석 객관론'과 캐럴의 차이가 나왔다. 문단2-1)에서 '객관론'은 작품 자체에 내재한 기술만이 작품 해석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지만 캐럴은 외적 기술이 중요하다고 한 것이다.

⇒ 작가는 작품 자체에 내재한 존재가 아니라 작품의 외부에 있는 존재이므로 작가의 의도를 중시한다면 작품 외적 기술을 중시하는 것이 당연하겠다.

4) 외적 기술은 작가에 관한 정보, 작품의 예술사적, 제도적,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한 기술 등 작가의 의도 파악에 도움을 주는 기술들이다.

⇒ 캐럴이 중시한 외적 기술에 해당하는 구체적 요소 등이 상술되어 있다. 이 외적 기술의 궁극적인 의도는 역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 문단6 : 해석학적 순환 과정에 따른 해석 상대론 난점 해소

1) 캐럴은 외적 기술들까지 해석의 근거로 활용되는 한편, 여러 해석들이 공존함에 따라 점차 참인 해석에 다가가게 된다고 보았다.

⇒ 캐럴이 외적 기술도 해석에 활용하자고 했던 이유는 결국 '해석 상대론'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당장은 여러 해석을 모두 용인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참인 해석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했던 것이다.

2) 캐럴에 따르면 이 [참인 해석에 다가가는] 과정은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밟는다.

⇒ 여러 해석들이 참인 해석에 다가가게 되는 데에도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밟는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해석학적 순환이 일어나는 것일까?

[주목] 캐럴은 해석학적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해석 객관론'의 난점이라고 했다. 해석학적 순환이 '해석 객관론'을 비판하는 데에도 사용된 반면, 해석 상대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겠다.

3) 모순적인 해석들조차 서로 공존할 때에는 상호 비교되어 해석의 교정을 유발하는데, 그에 따라 새롭게 주목을 받은 또 다른 기술들이 교정된 해석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 모순적인 해석마저도 일단 인정하고 상호 비교한다. → 해석들의 상호 비교를 통해 해석들은 교정된다. → 교정된 해석에 따라 선택되는 기술도 달라진다. → 이에 따라 해석에 교정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기술의 선택'과 '해석' 사이에 순환이 일어난다는 거다.

4) 캐럴은 사실을 근거로 삼는 이러한 과정이 무수히 반복되면서 해석이 점차 참인 해석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

⇒ 이런 순환이 무수히 반복되면서 차츰차츰 참인 해석에 가까워진다는 거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3~45] 현대시 : (가) 정지용, 「춘설(春雪)」

*** 작품 평가**

'춘설'은 봄눈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는 눈이 겨울을 상징하겠으나, 여기에서는 봄의 기운과 관련이 깊다. 봄눈을 바라보는 화자의 느낌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하자.

*** 작품 분석**

 # 1연 : 아침 풍경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 부사어 '선뜻'에 느낌표를 두어, 문을 열자마자 확 다가오는 아침 풍경의 순간적 느낌을 살려 놓았다.
⇒ '먼 산이 이마에 차라.'는 '멀리 보이는 산이 마치 이마에 차갑게 닿기라도 하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시각 이미지와 촉각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다. 눈 내린 봄날 아침의 풍경과 느낌을 간결하게 응축해 놓은 표현이다.

 # 2연 : 우수절

우수절(雨水節, 입춘과 경칩 사이의 절기인 우수로, '봄비로 물기운이 가득한 때'라는 뜻임. 양력 2월 18일경) 들어
바로 초하루(= 매달 첫째 날) 아침,
⇒ '우수절'이나 '초하루'는 계절을 나타내는 시간 표지. 입춘이 지났으니 봄이지만, 아직은 겨울이 완전히 물러나지는 않은 시기겠다.

 # 3연 : 산봉우리와의 이마받이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 [입춘도 지난 시기에 내린 눈으로] 새삼스레 눈이 덮인 산봉우리와
서늘옵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 [촉각적으로는] 서늘하고 [햇빛을 받아, 시각적으로는] 빛난 이마받이하다[→ 이마를 맞대는 듯한 느낌을 느낀다].
⇒ 의미상으로는 1연과 3연은 유사한 표현이겠다.

 # 4연 : 봄기운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 [봄기운이 돌아 단단히 얼었던] 얼음에 금이 가고 바람이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맞춰] 새롭게 부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 [봄을 맞이하는 흥취에] 흰 옷고름[에서조차] 절로 향기가 나는 듯하구나.

 # 5연 : 경이롭고 반가운 봄의 생명감

옹송그리고(= 춥거나 두려워 몸을 궁상맞게 몹시 옹그리고) 살아난 양이
→ [겨울의 추위를 견디느라] 웅크리고 있다가 [봄을 맞이하여] 살아난 [온갖 생명의] 모습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 한겨울에는 언제나 봄이 올까 하는 마음에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더니 다시 미세하게 살아나는 봄의 기운이 낯설 정도로 반갑게 느껴진다는 뜻이다.

 # 6연 : 만물이 소생하는 봄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움직이지 않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 움직임조차 없던 고기도 입을 오물거리는

 # 7연 : 봄눈 속에서 봄의 기운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 [아직] 꽃이 피기 전이지만 [봄에 내린] 제철이 아닌 눈에
핫옷(= 안에 솜을 두어 지은 겨울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입고 있는] 솜옷[마저] 벗고 그냥 [이 정도 꽃샘추위쯤은 있는 그대로] 느껴도 상관없겠다.
⇒ 화자는 겨울 눈이 아니라 봄눈을 보며 새삼 봄의 기운을 진하게 느낀다. 좀 추워도 마지막, 봄 추위라 생각하니 오히려 즐겁다.

 # 주제 : 봄눈이 내린 아침에 느끼는 봄의 생명력

이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